불러 … 대학, 교강사 관리 체계 재점검 나서야

신청 기간에 학생들이 해당 수업과 교수자에게 자신의 권리 일부를 양도하기 위한 판단근거는 강의계획서가 거의 유일하기 때문이다. 만일 수업 중 강의계획서 상에 명확히 제시되지 않은 내용이나 가치관, 사상 등이 수업 중 중요하게 언급되거나 강요될 경우, 학생들은 해당 수업에 대해 '암묵적 계약의 불이행'에서 오는 당혹감과 혼란을 갖게 될 수밖에 없다. 이는 언급되는 발언의 타당성 여부와는 상관없이 그 자체로서 헤게모니의 '계약, 동의절차'를 파기하는 행위다.

이제 후자의 경우를 보자. 후자, 즉 '교양교과목 시간에 교수의 개인적 가치관을 학생들에게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경우'는 교육학적인 문제를 갖는다.

전공교과목이 '지적인 교육'이자 '교과중심적인 교육'이라면, 교양교과목은 '도덕적 교육'이자 '인간중심적인 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교양교과목에 적확하게 들어맞는 교육철학은 실존주의적 교육철학이라고 할 수 있다. 실존주의적 교육철학은 도덕적 교육 분야에, 그리고 인간중심적인 교육방법에 중점을 두는 교육철학이기 때문이다.

독일의 철학자이자 실존철학을 교육학에 전용한 교육학자인 볼노우(Otto Friedrich Bollnow)는 '만남은 교육에 선행한다'는 유명한 말을 통해 진정한 교육의 의미를 역설했다. '교육 이전에 참다운 만남이 선행되어야 하며, 진정한 교육은 교수자가 자신의 권위를 포기하고 학습자와 인간 대 인간으로 만날 수 있을 때 가능하다'는 것이다.

만남의 철학자라 불리는 부버(Martin Buber) 역시 교육은 인간 대 인간의 만남이라고 했다. 그는 저서 『나와 너(Ich und Du)』에서 '대화적 관계가 가능할 때 비로소 상호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는 교육이 이뤄진다'고 보았다.

이는 교육이 단순히 지식을 전수하는 차원이 아니라 인간의 가치와 인격에 관한 문제임을 지적하는 관점이다. 교육은 기능적인 수단이 아니라 '인간의 변화와 성장'을 지향하는 과정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교양교과목 시간에 교수의 개인적 가치관을 학생들에게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경우'는 교수와 학생 간의 인격적 만남이 선행되지 않은 채 교수가 자신의 개인적 가치관을 학생에게 일방적으로 주입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비교육적인 상황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이택광 교수(글로벌커뮤니케이션 학부)는 "교수와 학생 간의 합의적이고 민주적인 방식이 보다 교육적인 방법론"이라고 지적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공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교수가 학생들에게 어떤 특정한 '변화'를 유도하고자 할 경우에는 변화를 강요하기 보다는 학생들 간의 토론과정을 통해 적절한 합의를 도출함으로써 학생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교수와 학생 사이에 '인격적 만남'이 선행되지 않고 교육이 일방적으로 이뤄지게 될 경우, 교수와 학생은 홉스테드가 언급한 '권력거리지수(power distance index; PDI)'의 문제로 인해 갈등 상황에 봉착하게 된다. PDI 수치가 클수록 전제적이고 가부장적인 권력관계가 형성돼있음을 의미하는데, 이 수치는 한국사회에서 중장년층으로 갈수록 높아지고 젊은 층으로 갈수록 낮아지는 추세를 보인다.

교수의 '일방적 주장'이 학생과의 합의과정 없이 강요될 경우,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평등하게 바라보는 학생들은 이 경험을 대단히 불쾌하게 여기게 된다. 이 불쾌감은 헤게모니 역학관계상 확보되어 있는 교수의 '지배적 위치'와 맞물려 더 큰 저항감을 형성할 수 있다. 만일 그 '일방적 주장'이 현대사회에서 금기시 되는 전근대적인 발언들이라면 더욱 더 그러하다.

개인적 가치관 일방적인 강요 인격적 만남 포기하는 것

많은 경우에, 교수가 수업 중 학생들에게 사적 견해를 일방적으로 강요해서 물의를 빚는 사건들은 해당 교수 개인의 결함 혹은 일탈로 치부되곤 한다. 그러나 이것은 적절한 인식이 아니다.

경희대학교에 다니는 학생은 결국 경희대학교에서 자신이 수강하는 강의에 대한 경험으로 경희대학교의 교육철학과 가치관을 판단할 수밖에 없다. 바꿔 말하자면, 한 명의 신입생이 졸업할 때까지 수강하는 교과목 강의들의 총합이 결국 그 학생에게 미친 경희대학교의 교육철학 그 자체인 셈이다.

한 대학의 교육 수준은 교수의 질적 수준에 의해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때문에 학교 측은 이 같은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졌을 때 '일부 교수의 일탈' 정도로 치부하지 말고 작게는 교강사의 관리에서부터 크게는 커리큘럼과 강의 내용 등에 대해 정치(精緻)한 재점검에 신속히 나서야 한다. 하지만 우리학교가 교강사 관리를 체계적으로 해왔는지는 다소 의문스런 상황이다. 이번에 물의를 일으킨 서울캠퍼스 후마니타스칼리지의 A교수는 우리신문의 취재 결과 오랜 기간 강의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한 대학의 교육 수준은 교수의 질적 수준에 의해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교육학자인 볼노우(Otto Friedrich Bollnow)는 '만남은 교육에 선행한다'는 유명한 말을 통해 진정한 교육의 의미를 역설했다. '교육 이전에 참다운 만남이 선행되어야 하며, 진정한 교육은 교수자가 자신의 권위를 포기하고 학습자와 인간 대 인간으로 만날 수 있을 때 가능하다'는 것이다

만일 학교 측이 꼼꼼한 교강사 관리와 정교한 커리큘럼 설계 등을 통해 최선의 방안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수업 중 사적 견해 강요'와 같은 부적절한 일이 생긴다면, 그 때에 학생들은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

부적절한 교수의 언행 옴부즈팀 통해 시정 요구할 수 있어

다시 그람시로 돌아가보자. 두산백과를 경유할 때, 안토니오 그람시는 대항의 관점에서도 헤게모니를 명료하게 정의했다.

그는 노동자 계급이 부르주아 헤게모니를 타도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헤게모니를 형성해야 한다고 보았다. 이 새로운 헤게모니는 기존의 부르주아 헤게모니보다 더 거대한 동의 기반을 가질 것이며, 더 많은 집단의 기대와 이해에 부응할 것이라 본 것이다. 그에 따르면 새로운 헤게모니, 즉 프롤레타리아적 헤게모니는 오직 지배적인 헤게모니와의 대립관계에서만 만들어질 수 있다고 한다.

이 말을 우리에게 익숙한 용어들로 재해석해보면, 헤게모니 관계를 통한 교수자의 '정치적 지배'가 교육학의 범주를 넘어서는 월권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경우에 학생들은 이에 대항하는 새로운 헤게모니를 형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위의 그람시의 주장에서, '부르주아 헤게모니'는 '교수자의 헤게모니'로, 그리고 '프롤레타리아 헤게모니'는 '수강생의 헤게모니'로 치환해서 읽으면 그것이 바로 학생들에 대한 조언이 될 수 있다. '입학과 수강'이라는 최초의 계약, 동의과정이 제도적 절차를 밟아 이뤄진 '학교행정'에 속하는 일이므로, 수업시간에 이뤄지는 교수의 부당하거나 부적절한 언행에 대해서 수강학생들은 역시 제도적 절차를 밟아 '학교행정'에 근거해 조직화된 힘을 발휘하는 것이 여러모로 편리할 것이다. 학교는 이러한 일을 처리하는 기구로 이미 '옴부즈팀'을 두고 있다. 서울캠퍼스 본관 4층 411-2호, 혹은 국제캠퍼스 예술디자인 대학관 213호를 방문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http://ombuds.khu.ac.kr/를 통해 교수자로부터 받은 여러 불편-부당한 대우에 대한 민원을 신청할 수 있다.

2015년도 대학직장 예비군 향방기본 보충훈련 안내

● 훈련대상 : 2015년 향방기본훈련 불참 및 연기자, 2학기 복학자 중 향방기본훈련 대상자

● 장소 : 금곡예비군훈련장

● 일정

훈 련 명	훈련일자	대상
향방기본 보충훈련	9. 30(수)	2시간 이하 대상자
	10. 2(금)	3시간 ~ 8시간 대상자

● 이동방법

가. 단체이동

1) 이동수단 : 대형 전세버스 이용 출발 및 복귀

2) 출발장소 / 시간 : 청운관 앞 도로 / 당일 07시50분 출발

나. 개별이동

1) 시내버스 : 30번(청량리/휘경동), 23번 / 1-4번(천호동), 93번(강변역)

2) 전철 : 중앙선 도농역 2번 출구 버스중앙차로 정류장에서 위의 버스로 환승

3) 개인차량 : 약도참조

● 참고 및 유의사항

가. 훈련 소집통지서는 휴대폰 문자, E-mail, 대학주보, 교내방송, 학교 / 단과대학 홈페이지, 각 행정실 게시판 등에 공고 및 공지되며, 1차 또는 2차 보충훈련 대상자는 예비군연대본부에서 직접 교부

나. 훈련일자 변경은 불가하며 개인적인 사정으로 학교 훈련일에 참가가 어려운 학생은 예비군홈페이지(http://www.yebigun1.mil.kr)에서 휴일 또는 전국단위훈련을 신청 · 참가하여 훈련이수 가능

다. 전년도 훈련 미이수자, 9월 16일 이후 예비군 전입자는 추후 개별 보충 및 이월훈련 부과

라. 복장(전투복, 전투모, 군화, 군용요대, 바클, 고무링)불량자 훈련입소 불가

마. 신분증(학생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반드시 지참

바. 훈련장에 반드시 09시까지 도착해야 하며 이후 도착자는 입소 불가

사. 훈련 무단불참으로 인하여 고발/벌금형 등의 불이익처분에 유의

아. 공결처리를 위한 훈련참가 확인서는 10월 5일부터 예비군연대본부 방문시 발급함

자. 기초생활수급권자는 사회복지 급여서비스 및 급여 통지서 서류 제출시 훈련이 면제됨

차. 훈련일 기준 휴학 등으로 본인 학적이 재학 중이 아닌 학생은 훈련참석 불가

카. 2014년1월 1일부 수업연한 초과자(졸업유예자) 지역편성, 병무청(동원), 지역 일반훈련 대상임

타. 훈련, 학사 등 정확한 정보 수신을 위해 예비군홈페이지에서 현재 사용 중인 E-mail과 휴대폰번호로 반드시 수정

파. 기타 문의사항은 청운관 1층 학생생활지원존 예비군연대본부(☎961-0148~9)로 문의

금곡(미금)훈련장 약도

찾아가는 방법

◈시내버스 이용
-청량리/휘경동 : 30번, 천호동 : 23/1-4번, 강변역 : 93번
◈전철 이용
-중앙선 덕소/용문행 [도농역] 하차 2번 출구 위의 버스로 환승
◈개인차량(내비게이션) 이용
-경기도 남양주시 이패동 284-1번지 or 금곡훈련장/충일아파트 검색
◈전화번호
-221연대: 031-595-8337(교환) 연대동원과 또는 3대대동원과
-경희대학교 예비군연대본부 : 02-961-0148~9
※반드시 08시 50분까지 금곡훈련장 부대정문에 도착

서울캠퍼스 예비군연대장

경희대학교에서 시행하고 있는 정보서비스 안내

1. 종합정보시스템 서비스
종합정보시스템(https://khuis.khu.ac.kr)에서는 교원의 급여안내, 연구/업적관리, 성적관리, 학생조회, 강좌관리 등이 가능하고, 학생의 인터넷 휴 · 복학 신청, 예비군전입신고, 시간표/수강조회, 강의계획서 확인, 성적조회, 장학신청, 등록금고지서 출력, 교육비 납입내역 조회, 학사일정 조회 등 대학생활에서 필요한 대부분의 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 스마트캠퍼스 앱 서비스
스마트 기기에서 대학의 주요 정보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어플리케이션 서비스입니다. 통신사 제한 없이 안드로이드 및 IOS(애플) 운영체계를 사용하는 모든 스마트 기기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앱스토어에서 '경희대학교' 로 검색해 설치하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수강신청시스템 서비스(웹/모바일)
수강신청시스템(http://sugang.khu.ac.kr) 에서는 종합시간표, 수강신청, 계절학기 수강신청, 희망과목담기 등을 조회 및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스마트 기기에서도 수강신청 앱을 설치하면 관련된 정보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앱스토어에서 '경희대학교 수강신청' 으로 검색해 설치하시면 됩니다.

4. 이메일 서비스
학생과 교직원은 누구나-id@khu.ac.kr의 형태로 학교 메일 아이디를 가질 수 있습니다. 웹메일 서비스(https://mail.khu.ac.kr)를 통해 국내는 물론 외국에서도 일반적인 상용 웹메일 서비스와 같은 방식의 활용성이 높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졸업/퇴직 후에도 이메일 계정을 계속 유지할 수 있어 경희인의 일체감 확립 및 동문회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5. 홈페이지 계정
경희대학교 홈페이지 서버에서 계정을 발급받아 개인별·개별 홈페이지를 제작,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발급 기준은 부서 및 교수 용도의 업무용 계정과 학생용 계정으로 구분됩니다.

6. 온라인 백신
컴퓨터 바이러스로부터 교내 PC 및 네트워크를 보호하기 위해 백신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정보지원처 홈페이지(http://ois.khu.ac.kr)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7. 캠퍼스 라이센스 소프트웨어
재학생과 교직원은 '캠퍼스 라이센스' 가 체결된 공용소프트웨어를 교내에서 무료로 사용할 수 있으며, 정보지원처 홈페이지(http://ois.khu.ac.kr)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 교육/행정용으로 필요한 소프트웨어는 해당 대학 행정실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8. 수강생에게 메일·문자 보내기 서비스
교수 또는 강사는 수업을 듣는 수강생에게 메일과 문자를 단체로 보낼 수 있습니다.

9. IP Address 및 Domain Name 신청
교내 전산망에 컴퓨터를 연결해 인터넷 및 통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IP Address 및 Domain Name을 신청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10. 인터넷 증명 발급
인터넷을 통해 성적증명서, 재학증명서, 재적증명서, 졸업증명서, 졸업예정증명서, 휴학증명서, 교직이수증명서, 수료증명서, 교육비납입증명서 등 각종 제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교내 각 건물에 설치된 증명발급기를 이용하거나, 개인 컴퓨터로 인터넷증명발급센터(http://kyunghee.certpia.com)에 접속해 증명서를 출력할 수도 있습니다.

11. 캠퍼스 무선랜(KHU Wi-Fi)
교내 전 건물 및 주요 외부 공간에서 노트북, 스마트폰 등 다양한 모바일 기기를 이용하여 무선 인터넷을 이용할 수 는 시스템이며, 종합정보시스템과 동일한 ID/Password로 접속 가능합니다.

12. 모바일 맞춤 통보서비스(경희 SMS 서비스)
교내 구성원들에게 휴대폰의 SMS(문자메시지)를 이용해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13. 설문조사 시스템
행정부서(대학본부, 단과대학, 부속기관)의 경우, '대량 메일 및 설문 시스템' 을 통한 온라인 설문조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시스템을 통해 자동 추출된 대상자에게 신속하고 경제적인 설문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체계화된 분석도 가능합니다.

14. 소중한의견 서비스
'소중한의견' 서비스는 시스템 자체에 대한 개선의견이나 칭찬/불편사항에 대한 정보지원처와 사용자간의 소통공간입니다. [종합정보시스템에 접속 => [소중한의견] 메뉴에서 메뉴별 의견등록이 가능합니다.

15. IT 콜센터
정보서비스와 관련된 각종 문의와 민원을 지원하기 위해 'IT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캠퍼스 Tel.(02)961-0304,0521 | 국제캠퍼스 Tel.(031)201-3171~3)

16. 기타
가. 이메일주소/휴대폰번호 등록 안내
각종 공지 및 긴급사항 연락을 위하여 종합정보시스템에 이메일주소/휴대폰번호 등록을 권장 드립니다. 등록 방법은 [종합정보시스템]에 접속 => [개인정보](교직원은 [My KHU]) - [개인정보변경] 메뉴에서 [E-mail]/[휴대폰] 항목에 각각 이메일주소와 휴대폰번호를 입력 후 [저장]버튼을 클릭하면 됩니다.

나. 종합정보시스템 비밀번호 사용 안내
최초 비밀번호는 주민등록번호 13자리로 되어 있으며, 처음 접속할 때 변경하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비밀번호를 5회 이상 틀린 경우 임의의 패스워드로 변경되오니, [비밀번호찾기]에서 이메일 또는 휴대전화로 새로운 비밀번호를 전송받아 접속하시기 바랍니다. 휴대전화 번호, 이메일 주소가 모두 변경되어 직접 전송받을 수 없을 경우에는 IT 콜센터로 연락하시면 본인 확인 후 휴대폰번호와 이메일 주소를 등록하여 드립니다.

다.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 안내
본교는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 환경을 유지하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불법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경우 저작권법에 의거 행위자도 처벌을 받게 됩니다. 교내에서는 반드시 정품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정보지원처 홈페이지(http://ois.khu.ac.kr)에서 확인하시고 추가 문의사항은 E-mail(it@khu.ac.kr) 또는 IT 콜센터(서울 02-961-0304,0521, 국제 031-201-3171~3) 로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지원처